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1. 11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자기 · 롯기 · 사무엘상 · 빌립보서 · 골로새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시자가의 길, 바 감사의 길

Contents

9 매일성경묵상 빌립보서 2장 ~ 골로새서 2장

16 1과 마지막 만찬의 음식

24 매일성경묵상 골로새서 3장 ~ 사사기 17장

32 2과 여러분의 마음은

40 매일성경묵상 사사기 18장 ~ 룻기 2장

48 3과 감사의 태도

56 매일성경묵상 룻기 3장 ~ 사무엘상 4장

64 4과 죽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72 매일성경묵상 사무엘상 5장 ~ 사무엘상 7장

☪ 「중언의 만나」는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를 돕기 위해 중언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계입니다

11

November 2011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빌립보서 2장	2 빌립보서 3장
6	7 골로새서 3장	8 골로새서 4장	9 사사기 14장
13	14 사사기 18장	15 사사기 19장	16 사사기 20장
20	21 룻기 3장	22 룻기 4장	23 사무엘상 1장
27	28 사무엘상 5장	29 사무엘상 6장	30 사무엘상 7장

December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3 빌립보서 4장

10 사사기 15장

17 사사기 21장

24 사무엘상 2장

금요일

4 골로새서 1장

11 사사기 16장

18 룻기 1장

25 사무엘상 3장

토요일

5 골로새서 2장

12 사사기 17장

19 룻기 2장

26 사무엘상 4장

교회 주요일정

11월 6일

제7차 성찬식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 감사찬양제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가족연합예배)

나의 주요일정

1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2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4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5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6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8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 감사의 길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오라고 부르십니다(마 11:28~29).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뿐인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기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품행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오직 주님만이 은혜로 그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만
제어될 수 있습니다(요일 2: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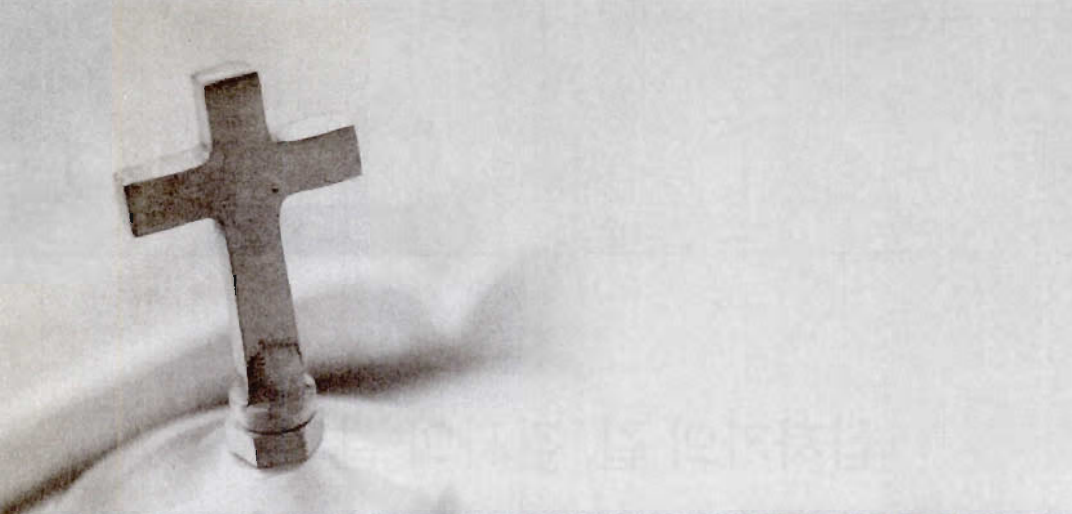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2011년 11월 21일 목요일 김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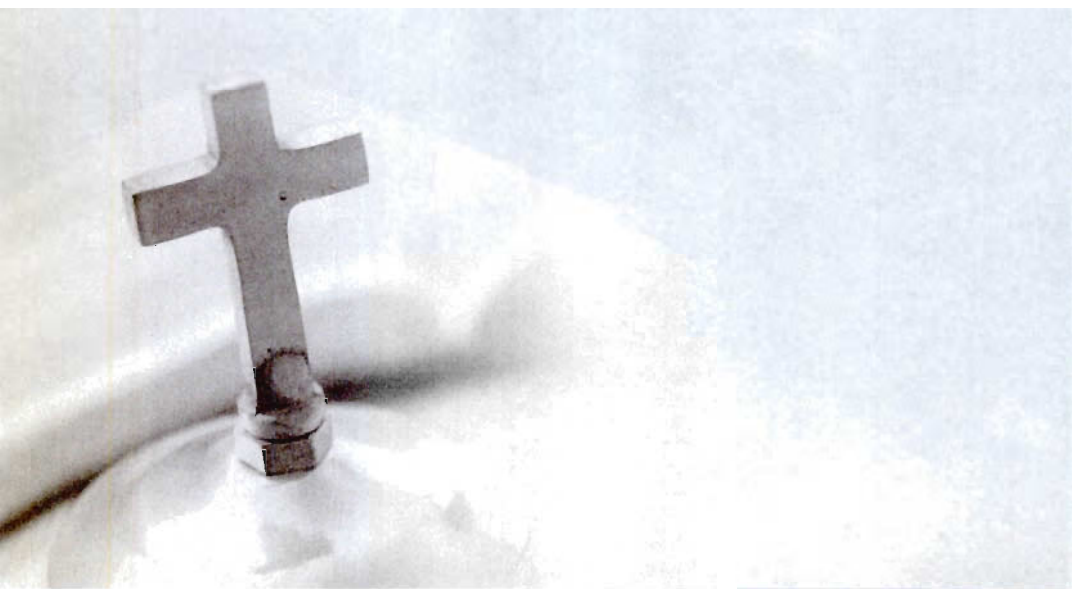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그리스도 예수 마음

1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삶인 것을 이야기했던 바울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2장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므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나 종의 형제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이 마음 안에서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서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지 못할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디모테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며 그들의 신앙에 대해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삶입니다. 결코 내가 가진 무엇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며, 무언가를 얻는 삶도 아닙니다.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삶,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같은 성도의 삶이 서로 만나서 한 몸 된 지체를 이룰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실로 놀라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같은 삶 안에서 자신이 전제와 같이 완전히 사라짐에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내가 더 많이 주인되지 못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한 날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빌립보서 2장

찬송가 407장

목/창/노/트

· 전제(17절) : '스펜도'라는 표현으로 이는 일차적으로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헌주' 또는 '전제를 드리다'를 뜻하기도 한다. 바울 서신에만 2번(빌 2:17 : 담 후 4:6) 사용되었으며 자신의 임박한 순교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냈다.

기도제목

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제로 드러질지라도 기뻐하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둔단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찬송가 442장

목/장/노/트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한 경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진 의가 결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유대적인 율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할례를 강조하면서 그릇된 구원관을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개, 행악하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쫓대를 향한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을 경계하는 삶을 사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육신적인 것들에 얽매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쫓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 원합니다.

• **고상환(8월)** :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는 의미의 ‘히페레코’라는 표현으로 ‘탁월, 뛰어난 가치, 더 나아가서 ‘통치자’를 뜻하기도 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빌 3:9)

기도제목

① 믿음의 길을 걸으며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일체의 비결

목요일

3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곧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그들이 주 안에서 사는 것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돕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결코 물질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하면서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우리는 바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극도로 궁핍한 삶 속에 있었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13절). 이 신앙 고백은 그가 어떤 탁월한 재주나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삶의 궁핍함이나 부요함, 그 어떤 것 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견디어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어떤 형편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찬송가 520장

목/상/노/트

• **자족(11절)**: 자신과 ‘충분하다’의 복합어로, ‘자족하는, 만족하는’을 뜻하며 이 때문에 ‘강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히브리어로는 ‘호크’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양식의 몫’이란 뜻이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기도제목

① 나의 욕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형상, 교회의 머리

골로새서 1장
찬송가 447장

목/상/노/트

골로새서는 바울이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이단적인 가르침의 현황에 대한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 들고 쓴 서신서입니다.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바울은 1~2절에서 인사를 마치고, 3~8절까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들의 열매 맺는 신앙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견디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임을 선언하며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받고자 함을 말합니다.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성도의 삶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선한 일에 열매 맺어야 합니다. 나날이 그분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하며 기쁨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같은 모습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다한 수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 1:18)

• 기입(12절) : '클레로스'라는 표현으로 '상속, 상속 재산, 제비, 제비뽑기' 등을 의미한다. 신약성경에서는 대부분 '어떤 자에게 할 당된 몫'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구약에서와 같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이 받는 것이다.

기도제목

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천왕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그리스도 안에서

5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노라는 바울의 고백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한 관심과 염려 그리고 권면과 호소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호소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단적인 사상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합니다. 유대교에서 온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천사 숭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궁극적으로 바울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떠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유일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지식이나 어떤 가르침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낱알이 쓰인 범죠통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 2:15)

골로새서 2장
찬송가 269장

목/상/노/트

• 자의적 숭배(23절) : '바라다, 원하다'와 '종교'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로 ' 스스로 만든 종교, 자의적 예배'를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의제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헛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2.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3.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4.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천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은 어찌 그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5.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6.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8.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 손양원(목사, 1902~1950)은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에게 잃고, 장례식에서 위와 같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



**마지막
만찬의 음식**
요한복음 6:30~40

**여러분의
마음은**
빌립보서 2:5~11

**감사의
태도**
데살로니가전서 1:1~3

**죽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2:8~13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6 주일

7 월요일

☐ 골로새서 3장

8 화요일

☐ 골로새서 4장

9 수요일

☐ 사사기 14장

10 목요일

☐ 사사기 15장

11 금요일

☐ 사사기 16장

12 토요일

☐ 사사기 17장

마지막 만찬의 음식

1

| 초점 |

떡과 잔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 찬송 |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요한복음 6:30~40

⁽³⁰⁾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³¹⁾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

⁽³²⁾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⁴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온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사로 시작됩니다. 이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요 6:14~15).

※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적을 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요 6:30). 그들이 보여준 태도와 행동은 오늘날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기적들을 달라고 요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행해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써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받아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실재를 강조한다

주의 만찬의 음식은 삶에 실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요 6:31 _____

요 6:32~33 _____

요 6:34 _____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육체적 필요만을 채우기 원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여전히 오해했습니다.

※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적이며, 여러분은 주님께 서 실재하심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되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 6:35 _____

풍성하다

주의 만찬의 음식은 풍성합니다.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식탁에서 생명의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먹고 자라며 양육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를 드러내 주십니다.

요 6:35 /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_____

※ 예수님으로 인해 삶에서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주의 식탁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에 쫓겨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넘치도록 풍부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주님의 응답과 은혜가 주의 만찬에 있습니다.

고전 11:24~25 _____

영원한 소망과 큰 기대를 준다

주의 만찬의 음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큰 기대를 줍니다.

요 6:40 / 내 의 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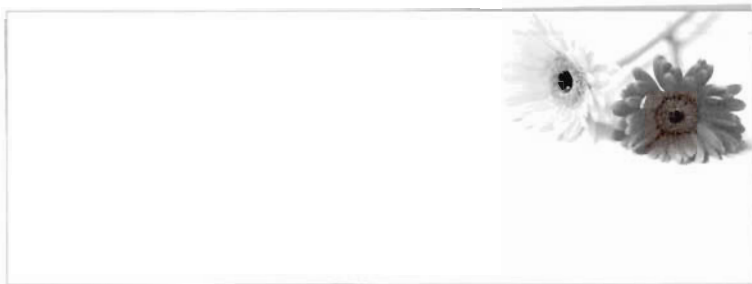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요 6:4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여러분은 생명을 얻습니다.

요 6:51 _____

고전 11:26 _____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기대와 소망의 글을 짧게 써 보십시오.



마지막 만찬의 음식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알아 보았습니다. 주의 만찬의 음식은 하나님의 실재하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풍성하며,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줍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더 찾고 있습니까? 왜 표적을 더 달라고 하십니까? 제발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지금 주의 식탁으로 함께 모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함으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떡과 잔을 취합시다. 떡과 잔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살전 4:17 _____

요일 5:11~12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떡과 잔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 ②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찬송가 282장

목/창/노/트

•사목(5절) : '파토스'라는 용어로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열정'이라는 긍정적 의미와 '정욕'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신약성경 안에서 이 단어는 바울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욕심, 성적 욕정'을 나타낸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는 사람임을 강조했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5절). 바울은 위의 것을 따르는 삶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며, 서로 용납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12절).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며, 무슨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15~17절). 이같은 성도의 삶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종으로서 그리고 상전으로서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권면합니다(18~25절).

성도의 삶은 결코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 사는 삶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은 어느 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죽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과 위치에서 오직 주 안에서만 행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
이라(골 3:3)

기도제목

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십자가와 함께 죽은 우리의 삶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기도에 대해 권면하면서 전도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며 그들을 추천하는 글을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통하여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그가 있는 곳의 상황을 자세히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그들을 향하여서 성도의 문안을 하고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에바브라, 의사 누가, 데마를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서도 읽게 하라고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도록 매임을 당하였다고 말하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가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가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3,18절)는 바울의 부탁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땅의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골 4:3)

골로새서 4장

찬송가 500장

목/창/노/트

• **마당히(6절)** :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하다, 의무가 있다, 옳고 적합하다 라는 의미이다. 본 절의 마당히 대답할 것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만 매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찬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사사기 14장
찬송가 376장

목/상/노/트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졌음에도 삼손은 이를 망각하고, 어처구니없이 블레셋의 딸과 결혼하려 했습니다(1~3절).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삼손의 열정을 사용하여 블레셋을 무찌를 계획을 진행해 가셨습니다(4절). 삼손은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생긴 벌 떼와 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취함으로써 주권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습니다. 이는 사자보다 강한 그였지만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이방 여인과 이방 문화의 달콤함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5~9절). 삼손이 결혼 잔치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자,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서 그 답을 알아냅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 힘을 과시하려다가 도리어 아내마저 잃고 말았습니다(10~20절).

삼손의 부모와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대했지만, 삼손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 무대 뒤에서 삼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고 계시며, 친히 그 일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려 있을 때라야 비로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힘의 근원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힘의 근원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신 소명을 잊는 순간, 우리도 이 세상에 쉽게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과의 연합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사 14:4)

• **암송이제(18절)** : 삼손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다. 암송이제는 발을 가는 데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경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기도제목

- ①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게 하시고, 언제나 힘의 근원이신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부르짖은 자의 샘

10

삼손은 개인적인 보복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웠지만, 그 뒤에는 삼손에게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1~8절).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하여 자신들의 구원자인 삼손을 배반하고 맙니다. 동족의 손에 포박당한 채 블레셋에 넘겨지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묶였던 밧줄이 끊어져나가고 나귀 턱뼈 하나로 1천 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9~16절).

나귀 턱뼈 하나로 1천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둔 삼손은 “라맛 레히” 즉, 나귀 턱뼈의 언덕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러나 아무리 나귀 턱뼈 하나로 대승을 거둔 삼손이라 해도 갈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움이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마름을 해결 하시기 위해 우물을 파고 “엔학고레”(부르짖은 자의 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만을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라맛 레히’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엔 학고레’의 은혜가 없었다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놓고 부르짖은 자에게 샘을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삿 15:18)

사사기 15장

찬송가 309장

목/상/노/트

• 심히 목이 말라(18절) :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데 엄청난 힘을 소모한 삼손이 심한 갈증으로 인해 죽을 것을 걱정하며 불신앙 속에 빠진 것은 삼손 역시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기도제목

① 업적을 자랑하는 ‘라맛 레히’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엔학고레’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11

사사기 16장
찬송가 446장

목/창/노/트

주 떠나가시면

나실인으로 선택 받은 삼손이었지만 그의 삶은 나실인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정욕적이었습니다. 그는 가사로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1절). 들릴라를 사랑한 삼손은 덤나의 아내 때와 같이(삿 14:15~17) 다시 들릴라의 유혹에 빠집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돈을 이용해 들릴라를 매수했고(4~6절), 삼손은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힘의 출처를 캐묻는 들릴라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맙니다(15~18절).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이방인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21, 23~25절). 그러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부르짖는 삼손의 청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심으로 삼손은 모든 블레셋 방백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28~31절).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엄청난 능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살라는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지 않은 그로부터 떠나셔서 그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머리털이 깎여서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에 무능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뜻을 이뤄가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불행한 방식으로 쓰임 받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정욕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삿 16:20)

• 다관(23절) :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 신이다.

기도제목

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믿으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됨을 고백하게 하소서. ② 출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12

도둑질과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가정의 모습입니다.

다. 미가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막대한 돈을 훔쳤다가 저주가 무서워 죄를 고백했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줍니다. 게다가 그 돈의 일부로 우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세우고,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1~6절).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십일조로 생활을 유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 청년이 거할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레위인을 부양하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7~9절). 미가는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고 말합니다(10~13절).

미가의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미가는 자기를 위해 신상을 만들고, 돈으로 사적인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모습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레위인을 자기 집의 안녕을 위해 고용한 미가처럼, 우리도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고용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는 고백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세상적인 부요함과 권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의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삿 17:13)

사사기 17장

찬송가 292장

독/상/노/트

• **드라빔(5절)** : 집안에 두는 우상으로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미신적으로 사용되었다.

기도제목

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이제 왔느냐, 잘 왔다”

작렬하는 태양 아래 선릉역 주변으로 전도하러 가는 길. 떠나기 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 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며 환한 얼굴로 전도지를 나눠 주며 복음을 전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반응 없이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는데 모르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 순간 주님을 몰랐을 때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시기, 질투, 원망, 무관심, 열등의식, 외로움으로 잠자리에 들 때면 아침에 눈 뜨지 않기를 바랐던 적도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주님이 “이제 왔느냐, 잘 왔다” 하시는 것만 같았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회개와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셨

다.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이 내 마음을 표현해 주었고 주님의 말씀은 송이꽃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관용하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이제는 만나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기를 청하게 되었다. 그 은혜에 이끌려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와 교구 주변으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간다. 내 삶에서 주의 향기가 나게 하시며 자신을 부인하도록 구하며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남은 인생이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구한다.

김남순(권사, 19교구)

마지막
만찬의 음식
요한복음 6:30~40

여러분의
마음은
빌립보서 2:5~11

감사의
태도
데살로니가전서 1:1~3

죽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2:8~13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3 주일

14 월요일 ☐ 사사기 18장

15 화요일 ☐ 사사기 18장

16 수요일 ☐ 사사기 20장

17 목요일 ☐ 사사기 21장

18 금요일 ☐ 룖기 1장

19 토요일 ☐ 룖기 2장

여러분의 마음은

2

| 초점 |

진심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 찬송 |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 본문 | 빌립보서 2:5~11

⁽⁵⁾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⁶⁾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¹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¹¹⁾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보통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어떤 인간 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그 사고방식은 통상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기초하여 남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완벽하게 읽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기초하여 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파악합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랍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일에 있어 '정함이 없는 자' 라고 말씀합니다.

약 1:5~8 _____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겸손을 순수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 빌립보서 2장을 정리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부르심에 응답하자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부르십니다(마 11:28~29).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뿐인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기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품행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오직 주님만이 은혜로 그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롬 15:1~3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죄뿐인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어될 수 있습니다(요 일 2:15~17).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 내가 사랑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드러자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신분이 변합니다.

고후 5:15~17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땅의 보물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딤후 1:7

롬 7:24~25

롬 8:2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아등바등 댈다면 곤란을 겪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계속 짓눌린 삶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자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의 행동방식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성육신하셨습니다.

빌 2:6~8 _____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하늘 가는 길까지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요 3:16 _____

빌 2:9~11 _____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요일 5:4~5 _____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마음 전부를 드려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정반대의 상황으로 몹시 힘들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 가정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 평화 그리고 참된 승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 항복하여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골 3:15 _____

벧전 1:13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성도들이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글은



헛된 제사

사사기 18장
찬송가 321장

묵/창/노/트

단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의 땅 사이에 기업을 얻었으니(수 19:40~48) 이 지역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아모리인들에게 쫓겨났습니다(삿 1:34). 때문에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려고 결정하면서 그 길의 성공 여부에 대해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합니다. 레위인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살롬(평안)의 메시지로 그들을 격려합니다(5~6절). 레위인에게 살롬의 말을 듣고 길을 나선 정탐꾼들은 마침 평화로운 마을 라이스를 만나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확신했습니다(7~10절).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빼앗고, 레위인에게 지파의 제사장 자리를 제안합니다(11~20절). 단 지파는 폭력을 동원해 미가의 집에서 신상들과 에봇을 훔쳤을 뿐 아니라, 평화로운 마을을 침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무섭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21~31절).

이러한 단 지파와 제사장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력으로 라이스를 정복한 단 지파는 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아무리 형식을 잘 갖춘다 해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드리는 것은 헛된 제사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위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때까지 기업을 분배 받지 못하였음이라(삿 18:1)

• 마하네 단(12절) : 단의 진영, 단 지파의 총력'이라는 뜻. 소리와 에스다를 사이에 있던 마하네단(삿 13:25)과는 다른 장소이다.

기도제목

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헛된 제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망령된 일

15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거룩함의 모델이 되어야 할 레위인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 첩을 취했습니다. 레위인은 행음하고 친절으로 돌아간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길을 떠납니다(2~3절). 장인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뒤늦게 길을 출발한 레위인과 첩은 자신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어 해 저문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한 노인의 집에서 쉼을 얻습니다(10~21절). 그런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 레위인 남자와의 성관계를 요구합니다(22절). 레위인은 가련하게도 불량배들의 요구에 자기의 첩을 내어주어,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육보임을 당한 후 처절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집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25~28절). 레위인은 집으로 돌아온 첩의 시체를 열두 토막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전체에 보냅니다(19~30절).

끔찍하고 엽기적인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는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과거 롯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창 19:4~8),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음행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음란을 버리고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음란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삿 19:1)

사사기 19장
찬송가 268장

독/상/노/트

•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14절)
참) : 베냐민 지파의 명토 안에 있는 기브아이다. 다른 지파에 있는 기브아와 구별하기 위하여 '베냐민의 기브아'라 하였다.

기도제목

- ① 거짓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잘못된 동기

사사기 20장
찬송가 302장

목/상/노/트

•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1절) :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으
로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
단에, 브엘세바는 최남단
에 있었다.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토막 내어 이스라엘 전체에 보낸 사건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쏟아져 나왔으며, 칼을 빼는 병사들도 무려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1~2절). 어떻게 이런 악행이 일어났는지 묻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레위인은 사건의 전말을 전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며, 자신의 첩이 당한 수치를 갚기 위해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고 싸울 것을 부추깁니다(3~11절). 결국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2번이나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12~28절). 패배를 거듭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세 번의 전투만에 승리를 거두고, 베냐민 지파는 마치 가나안 족속이 멸절되듯 파괴되어 버립니다(29~48절).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다가 결국은 모두가 몰락하는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마저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작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온 공동체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연이은 패배를 두 번이나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복수심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던 그들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명분 이 그럴듯하고, 정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자신과 관계된 일에만 흥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삿 20:21)

기도제목

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하는 그것조차 나를 위한 악한 동기에서 비롯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매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사사기의 결론

17

베냐민 지파의 만행을 응징하는 데는 크게 성공했지만, 열두 지파에서 한 지파를 잃게 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1~7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라짐을 막기 위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의 아베스 주민을 진멸하고, 그들 중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 4백 명만 살려서 데려와 숨어 있는 베냐민 남자와 결혼시켰습니다(8~12절). 하지만 여자의 수가 부족했습니다(13~18절).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냐민 남자들에게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해 오게 했습니다(19~24절).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5절)로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이 한 마디를 설명하기 위함인 듯해 보입니다. 타락의 결론이 “왕이 없으므로” 였다면,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밭을 들여 놓았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즉,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역사는 이제 룯기와 사무엘서를 거치며 한 왕을 소개시켜 줍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는 왕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오시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진실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왕을 믿습니까?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

사사기 21장
찬송가 313장

목/창/노/트

• 기업을 있어야 하리나(17절) : ‘기업’이라는 말이 지칭하는 바는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각 지파에 분배된 ‘분깃’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가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메시아의 가정

룻기 1장
찬송가 291장

독/창/노/트

• 마라라 부르라(20절) : 나옴이란 이름은 '즐거움', '온후함'을, 마라는 '괴로움', '고통'을 뜻한다. 과거에는 그녀의 생활에 안락함과 기쁨이 있었으나 이제 모든 안락함과 기쁨은 사라졌다고 한 것이다.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온 가족이 모압으로 떠났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옴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1~5절). 그녀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만이 남았습니다(6~14절). 룻은 자기 민족과 신을 바꾸면서까지 나옴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16절).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옴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17절). 나옴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이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19절). 나옴이 약속의 땅을 등진 것은 기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21절). 그녀는 풍족할 때 나갔으나 하나님은 그녀를 텅 비게 하여 고향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나옴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옴이 아닌, 그녀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였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를 연결할 한 왕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룻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방인에다 남편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보잘것없는 한 가정,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난 한 가정을 사용하시어 메시아의 가정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인 것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텅 빈 것도 감사이고, 풍족함도 감사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인 것을 알 때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 은혜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룻 1:21)

기도제목

① 평범한 한 가정을 메시아의 가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신 사건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집회(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우연 속에 나타난 섭리

19

보리 추수(3~4월경) 시기에 귀향한 두 과부는 생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룯은 밭에 나가 이삭을 주움으로써 나오미를 기꺼이 봉양하고자 했습니다(1~3절). 보아스는 룯이 이삭을 줍는 밭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룯에게 후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는 룯의 경건함(12절)과 나오미를 향한 그녀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양의 곡식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룯의 아름다운 행위에 응답합니다(15~16, 19절). 나오미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고통 중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토록 고통스런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함없이 보살피 주셨다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19~20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1절). 성경은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을 잃은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을 대신하여 기업을 이어갈 존재이며, 또한 남편을 잃은 룯에게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3절). 성경은 룯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시라는 필연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알 때 비로소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룯 2:3)

룯기 2장

찬송가 384장

목/상/노/트

•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23절): 보리 추수는 4월 중순에 시작되며, 밀 추수는 그보다 2주일 정도 후에 시작되어 7주 동안 계속된다.

기도제목

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코레의 사십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추수감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창 4:3~4).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켰던 3대 절기의 기초도 감사였습니다. 유월절(출 12:27)은 출애굽을 감사하는 절기였고, 맥수절(출 23:16)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심어 첫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으며, 초막절(신 16:13)도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고 1년간 농사지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특히 이 절기를 지킬 때 집이 아닌 성전에 모였고, 하루가 아닌 7일간 지키며 감사의 의미를 깊이 되새겼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도 감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한 분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시 50:23).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기뻐던 일보다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살후 2:13). 우리의 삶이 형통하였든지 형통하지 않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감사는 넘치고도 넘칩니다(고후 9:15).

마지막
만찬의 음식
요한복음 6:30~40

여러분의
마음은
빌립보서 2:5~11

감사의
태도
데살로니가전서 1:1~3

죽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2:8~13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0 주일

21 월요일

☐ 토크 3장

22 화요일

☐ 토크 4장

23 수요일

☐ 사무엘상 1장

24 목요일

☐ 사무엘상 2장

25 금요일

☐ 사무엘상 3장

26 토요일

☐ 사무엘상 4장

감사의 태도

3

| 초점 |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자

| 찬송 |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 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1:1~3

¹⁾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²⁾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³⁾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의 태도에 대한 명료한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서신서에서 바울은 감사의 개념을 사용하여 가르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 보십시오.

골 3:17

21세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분에 관해 온전히 감사하지 않은 채 푸념과 불평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참된 감사에 대해 바울이 이해하고 가르쳤던 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감사가 개인적인 환경이나 상황과는 무관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심지어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주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살전 5:18 _____

고후 1:8~11 _____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셨음에도 떡과 잔을 취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즉 밥을 먹거나 설교할 때, 심지어 죽을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마 26:26~28 _____

※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행해야 하는 본분입니다.

살전 1:2~3 /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 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의 □□와 □□의 □□와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에 대한 □□의 □□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믿음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 항상 기도할 책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으로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도 감
사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살후 2:13 _____

우리는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
다. 만약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 음침한 다
른 길로 걷게 됩니다.

롬 1:21 _____

※ '감사 드림'이 나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감사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넘어 남들에게도 감사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축복에는 감사를 잘 드리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소홀히 대합니다.

※ 로마서 1:9~10, 고린도전서 1:4, 골로새서 4:2 말씀이 전하는 핵심을 정리해 보십시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 몸으로 느끼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든, 마음에 상처를 입었든 관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지체입니다.

고전 6:15 _____

고전 12:27 _____

엡 1:15~16 _____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돌보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유산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는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진실로 주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며, 그 감사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감사의 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감사하십시오.

살후 2:13

고전 15:57~58

| 간절한 기도 |

- ① 범사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 ③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현숙한 마음

룻기 3장

찬송가 435장

목/상/노/트

나오미는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선합니다(1~4절). 룻은 나오미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잠든 후에 밭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5~8절).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한 것은 보호자가 되어 달라고 청혼한 것입니다(9~10절).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을 찾아 기업을 무를 것인지 묻고, 혹시나 그가 거절하면 자신이 기업을 무를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11~13절).

모든 계획을 준비한 것은 나오미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믿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계획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러한 룻에게 보아스는 현숙한 여자라는 말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룻은 절대로 현숙한 여자가 아닙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말썽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모습이 룻의 현숙함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포함된 자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현숙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18절)로 마치는 이 장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사 9:7). 이 일을 룻을 메시아의 족보에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 기업 무를 재(12절) : 일반적으로 ‘친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결혼한 남자가 자식 없이 죽을 경우,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함을 나타낼 때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음 백성이 다 아느니라(룻 3:11)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② 월요일 새벽기도회에 모인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감수하고 롯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습니다(1~2절). 그 당시 기업을 무를 때에는 땅을 살 뿐만 아니라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무를 자를 찾아 보았으나 원하는 자가 없어 결국 자신이 기업 무르기를 감당합니다(7~10절). 보아스와 롯이 결혼하자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기업 무를 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13~17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오벧입니다(18~22절).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어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롯과 결혼함으로 동참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신기한 일도,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경은 보아스가 롯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입니까? 결국 롯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도 아니요, 롯도 아닙니다. 성경은 고향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던 한 가정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보아스라는 친족과 결혼하여 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결국 다윗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소망이 끊어진 한 가정에 허락하신 기업 무를 자, 곧 한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벧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롯 4:17)

롯기 4장

찬송가 101장

목/상/노/트

· 성을 장로 열 명(2절) : 이들은 베들레헴 같은 지방 공동체의 업무를 다스리던 통치 기구로 보는 것이 좋다.

기도제목

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불임 여인 한나는 자신에게 아기가 없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1~6절). 태를 막으시는 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한나는 그 해결 방법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기도(1~6절)에 매달립니다. 그녀의 기도는 너무도 간절하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11~16절). 제사장인 엘리에게 응답을 받은 후 한나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여 근심의 자리를 털고 고통의 애가를 그칩니다(17~18절). 한나가 임신을 하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젖 떼기만을 기다립니다(19~23절).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녀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을 여호와께 드립니다(24~28절).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던 시절이었기에 그녀는 단지 아들이 없다는 슬픔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7절)의 표현으로 봐서 그녀의 슬픔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는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1~6절)에 응답해 주셨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 만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여서 자기 품에서 기르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키우려고 할 것인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진실로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관심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선물입니까? 주님입니까?

• 한나(2절) : ‘은혜로운 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삼상 1:28)

기도제목

- ① 선물보다 주님께 더욱 관심이 많은 자가 되게 하소서. ② 2011년, 종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24

사무엘 신물로 받은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녀의 기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기록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2절). 한나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11절).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12~17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이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22~26절). 결국 엘리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27~36절).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은 예수님의 족보되는 다윗 왕의 기름 부음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됨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이 되실 메시아의 족보가 다윗의 족보임을 바라보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한나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뱃속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삼상 2:1)

사무엘상 2장
찬송가 428장

목/상/노/트

• 세마포 예복(18절) :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과 다른 것으로,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입었던 옷이다.

기도제목

① 세상의 축복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뻐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아는 죄악 때문이니

사무엘상 3장

찬송가 452장

목/상/노/트

여호와가 찾아오시는 일이 드문 시대에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의 섬겼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실로에 남기고 간 이후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1~4절).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는 그에게 여호와가 말씀하시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고(5~10절),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주셨습니다(11~17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큰 인물로 삼으셨습니다(19~21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는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틀겠나이디 하라”(9절)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엘리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13절).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성경을 읽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믿음은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여가 시기에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는 데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 **등불(3절)** : 성소에서 찬설
병을 놓은 성의 빛은편 금
등 잔대에 켜 놓은 등불로
밤에 계속 켜놓았다가 아
침에는 차절로 꺼지도록
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삼상 3:13)

기도제목

①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이 살아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
가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
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교제하는 삶

26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대신 오히려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3절). 게다가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도 예언대로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3~11절). 엘리는 패전과 함께 아들들의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죽고, 남편을 잃은 며느리 역시 조산을 하여 아들을 낳고서 죽고 맙니다. 기뻐해야 할 날이 가장 슬프고 애통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12~22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 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엘리의 두 아들들은 몸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에 있었으나 마음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법궤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했을 것이고, 엘리의 두 아들도 믿음으로 제사를 도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 자신들의 행위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
 (더래삼상 4:11)

사무엘상 4장

찬송가 430장

목/창/노/트

• 이가봇(21절) : '가봇'은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뜻이며 접두어 '이'는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즉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인식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기도제목

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두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영적인 회복이 나에게 더 감사할 뿐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생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살아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입술로만 감사하며 죽음의 깊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다녀온 후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가슴 답답함, 시간차 기억상실 때문에 무슨 일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1시간 전의 일이 생각나지 않고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 바보 아닌 바보가 되어버린 나였습니다.

고통 중에 구역예배를 드린 후 구역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강남 세브란스 응급실에 가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모든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T, MRA, 뇌파검사, 동맥검사 등 모든 검사는 실시되었고 2주 후에 나올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초췌하게 변한 나의 육신을 바라 보며 삶과 죽음의 깊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내 머리는 온통 의심이 가득 차 있었고 성령의 지시는 믿음일 뿐인데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있음을, 또한 복음 안에 있다고 입술로만 고백했을 뿐 나는 주님 앞에 죽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주님께 부탁한 채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내 육신은 죽노라 고백하며 나의 생명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바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육신은 죽고 내 영혼이 천국 가게 하소서. 육신의 건강으로 천국 낙오자이기보다 나의 육신은 죽고 영적인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천국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2주를 주님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낸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 예수님, 천국 확정을 나에게 지시하시려는 짧은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육신의 건강이 아무 이상 없어 감사함보다는 영적인 회복이 나에게 더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요, 또한 우리가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잠자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좋은 계절에 나도 복음 전파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으로 생명을 구한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경순(집사, 14교구)

마지막
만찬의 음식
요한복음 6:30~40

여러분의
마음은
빌립보서 2:5~11

감사의
태도
데살로니가전서 1:1~3

죽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2:8~13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7 주일

28 월요일

☐ 사무엘상 5장

29 화요일

☐ 사무엘상 6장

30 수요일

☐ 사무엘상 7장

1 목요일

☐ 데살로니가전서 1장

2 금요일

☐ 데살로니가전서 2장

3 토요일

☐ 데살로니가전서 3장

죽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 초점 |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 찬송 |

찬송가 608장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찬송가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 본문 | 디모데후서 2:8~13

⁽⁸⁾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⁹⁾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

⁽¹²⁾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¹³⁾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우리를 안심시켜줍니다.

※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네로 황제의 박해로 로마에 투옥된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의 믿음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알았습니다(롬 6:5~8). 그는 수차례에 걸쳐 죽을 뻔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잃을까 걱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딤후 2:9~10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여러분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디모데가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딤후 2:8 _____

계 1:17~18 _____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 **로라**”(롬 6:9). 그러므로 은총의 자녀들은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사람들 모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전 15:22~23 _____

요 11:25 _____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복음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임을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요 15:20 _____

많은 설교자들이 고난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신자들도 그런 말씀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 받아야 할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낮지 않습니다.

※ 마태복음 10:24~28, 사도행전 9:15~16 말씀이 공통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바울(고후 11:23~27)과 현재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신실함에 따른 하늘의 상급이 있다

바울은 하늘의 상급이 이 땅에서의 신실함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디모데가 확신하기를 원했습니다.

딤후 2:11~13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 16:24

마 16:27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삶의 영광이 되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 나의 삶의 여정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을 붙드는 삶이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죽음은 분명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또 다른 소망의 시작이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신자들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집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요 14:6 _____

요일 2:25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억하게 하소서.
- ② 복음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은총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매 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



여호와와의 궤

사무엘상 5장
찬송가 200장

목/창/노/트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여호와와의 궤'를 자신들의 신에게 예물로 바치기 위해 신전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복자의 신 다곤을 쓰러뜨리고, 손목과 머리를 잘라 넘어뜨려 자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1~5절). 다곤의 '손'을 자르신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는 블레셋 곳곳에 독종을 내리셔서 블레셋인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10절). 블레셋 방백들은 결국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11절).

블레셋이 여호와와의 궤를 그들의 신 다곤 옆에 둔 것은 패배한 하나님이 승리한 다곤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므로 그들의 신 다곤이 신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물리친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라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이 여호와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를 하실 분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는 재앙을 일으키셨지만, 이스라엘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은 죄인들임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매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삼상 5:4)

• 에그론(10절) : 블레셋의 북방 5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가드 북쪽 9.6km 지점에 위치했다.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다.

기도제목

① 여호와와의 궤를 이스라엘에 허락하셨듯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블레셋인들이 독종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들은 언약궤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일에 대한 속죄의 필요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내준 제물들은 '생명 있는 짐승의 피'를 요구하시는 율법의 규례에 합당치 못했습니다(레 6:1~18). 또한 그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로 하여금 끌도록 했는데(7절, 이것 역시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과오를 용납하시고 더 이상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1~9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가 이방 블레셋 군대에게 탈취 당한 지 꼭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하여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을 차례로서 이스라엘에 벤세메스 재앙이 내려집니다(10~21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3절). 속건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제사법이었지만, 블레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에 대해 진노하시며,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에 대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삼상 6:4)

사무엘상 6장

찬송가 82장

목/상/노/트

• 속건제(3절) :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서 탈취한 것을 허물로 인정하고, 여호와의 존귀를 침해한 보상으로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레 5:14~6:7에 나타난 성경적 속건제와는 다르다.

기도제목

① 나의 기쁨과 감정을 따라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예배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이십 년 동안

사무엘상 7장

찬송가 280장

목/상/노/트

- 미스바(5절) : 예루살렘 북쪽 11.2km에 위치한 군사 전략상의 요충지이며, 기도와 경배의 장소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다.
- 에벤에셀(12절) : 아벳 근처 에브라임의 한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벳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을 맞아 이곳 에벤에셀에 포진하고 있었으나 이 전투에서 패배했다(삼상 4:1). 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블레셋을 이기도록 해 주셨다. 이때 사무엘은 가림비를 세우고 이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 즉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다.

법궤의 최종 도착지는 옛날 법궤가 위치했던 실로에서 가까운 기랏여아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관되었는데(1~2절), 사실상 다윗에 의해 다윗 성으로 옮겨가기까지 약 40년간 그곳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에게 맡겨주신 선지자, 제사장, 사사직을 감당합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와 변화의 길로 인도하였고(3~4절),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재확립하였습니다(5~6,9절). 또한 그는 사사로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7~14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 놓은 지 이십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고백을 합니다. 궤가 이미 블레셋에서 돌아왔음에도 그들은 20년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고생만 하며 보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삼상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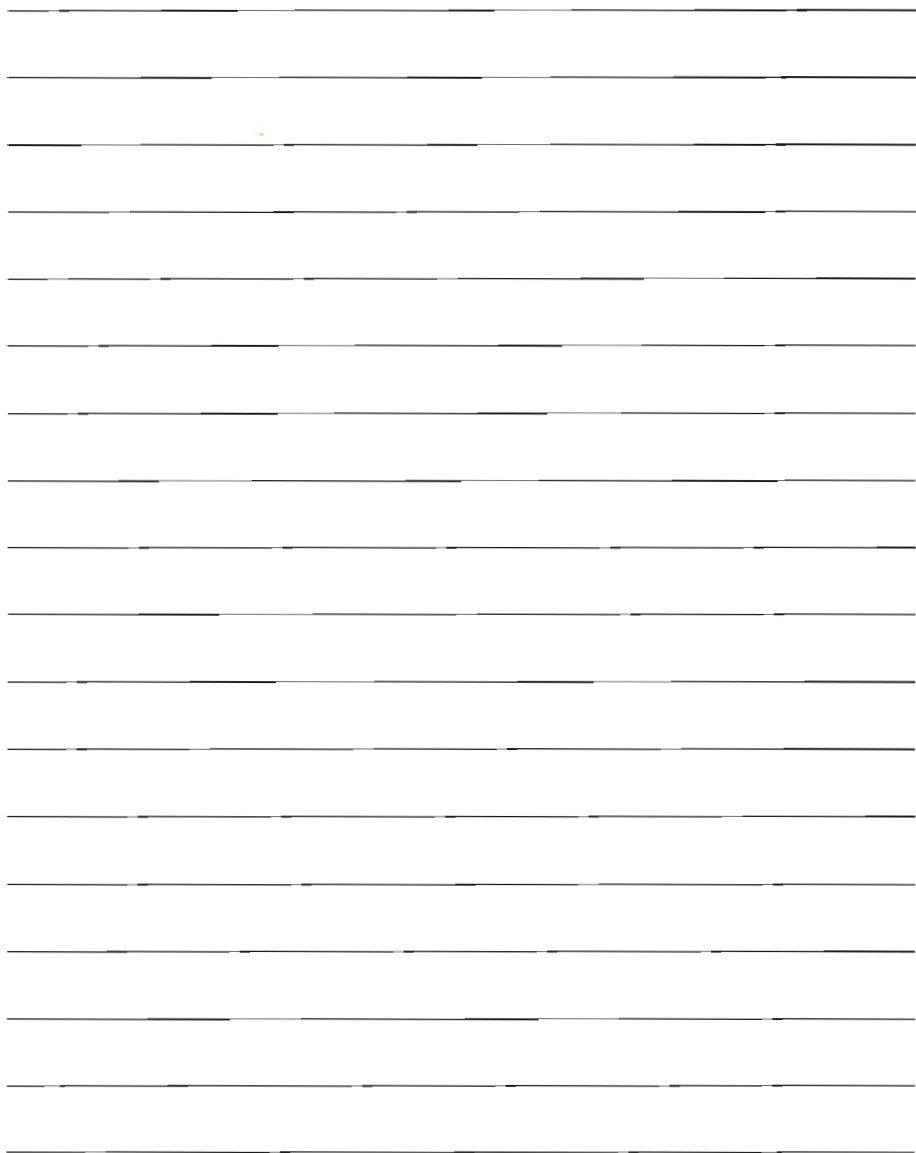
기도제목

- ①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11/11/11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1년 11월

Copyright © 2011 Choa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박지훈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